

변동장에 은행·보험주 ‘인기’... 外人·기관 매수 행렬

韓기업 실적회복 등 증시 변동성 ↑
우리금융지주 2.15% 등 올라
은행주 이동, 계절적 요인 분석



/유토이미지

국내 증시가 박스권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지속하면서 상대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양호한 은행·보험주 등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국내 기업의 더딘 실적 회복, 중국발 경제 위기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인 투자처인 배당주에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7거래일간 KB금융은 2.47% 상승했으며 우리금융지주(2.15%), 하나금융지주(1.54%) 등도 올랐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은행주 상승세를 이끌었다. 외국인은 지난 일주일간 우리금융지주를 335억원 순매수했으며,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등도 각각 163억원, 162억원, 131억원 어치 사들였다. 같은 기간 기관투자자들은 KB금융(157억원), 신한지주(85억원), 메리츠금융지주(83억원) 등을 순매수했다.

은행주로 수급 이동은 계절적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통상 배당주는 매년 4월과 9월, 12월마다 수익률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 9월은 배당 가시성이 확인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9월은 2분기 실적 시즌을 마친 때”라며 “상반기 실적을 모두 알게 되면 올해의 배당 가능 이익에 대한 윤곽이 잡히기 때문에 최소수개월을 보유하는 중·장기 투자자가 포트폴리오 배당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배당주에 관심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4대 금융지주사들이 상반기 역대 최대인 9조1824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것도 은행주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보험주도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KRX 보험 지수는 3.86% 올랐다. 올해 상반기 새로운 회계기준(IFRS9·IFRS17) 변경으로 보험업종 대표주들의 실적이 개선된 점이 추가 상승을 이끌었다.

향후 국내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이어

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증권업계에서는 은행주와 보험주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은행주에 대해 “외국인이 주간 단위로 국내 은행주를 500억원 이상 순매수한 것은 지난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수급 변화에 주목해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은행의 주주환원율 환원 확대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배당성향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기대배당수익률이 높아 올해 하반기에도 은행주는 배당 랠리가 발생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계리적 가정 완전 적용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보험업종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해소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며 “해당 국면을 앞두고 저평가 종목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국내 투자자 해외주식 순매수 상위 종목〉

기간 : 8월29일~9월4일, 한국예탁결제원

순위	종목명	순매수결제
1	NVIDIA CORP	5914만5987달러
2	APPLE INC	3529만7778달러
3	TESLA INC	1975만1604달러
4	REALTY INCOME CORP	1437만7530달러
5	AMC ENTERTAINMENT HOLDINGS INC	1371만3925달러
6	TD YL TSL IN ENF	1356만3953달러
7	ISHARES 20+ YEAR US TREASURY BOND JPY HEDGED ETF	1124만0349달러
8	YANGUARD SP 500 ETF SPLR 39326002188 US9229084135	1064만3234달러
9	DIREXION DAILY SEMICONDUCTORS BULL 3X SHS ETF	865만7045달러
10	PALANTIR TECHNOLOGIES INC CL A	816만1036달러

서학개미, 엔디비아·애플 등 집중 ‘매수’

해외주식 Click

빅테크주로 지분 이동 높아져
인공지능 수혜주 기대감 방증
지난주 엔디비아 783억 순매수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엔디비아, 애플, 테슬라 등 빅테크주로 지분을 이동시키고 있다.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인공지능(AI) 수혜주에 대한 비중을 늘리면서 기대감을 방증했다.

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주(8월 29~9월 4일) 서학개미들은 최근 2주간 엔디비아에 공격적인 투자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엔디비아만 5914만달러(약 783억)를 순매수했으며, 순매수 상위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인공지능(AI) 열풍으로 엔디

비아가 올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기록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엔디비아는 연초부터 7월까지 219.7%, 8월에 5.6%로 오르면서 이미 고점을 갱신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래 가치가 높게 평가되면서 추가 매수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남대중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엔디비아의 실적 전망 사항은 생성형 AI 관련 수요 확대가 지속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또 다른 AI 수혜주로 분류되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볼 3X ETF(SOXL)도 순위권에 들었다.

이외에도 서학개미들은 테슬라와 애플 등 빅테크 기업에 집중하면서 추격 매수에 들어갔다. 서학개미들은 상반기에 채권, 인버스, 레버리지 상장지

수펀드(ETF) 등을 선호했지만 시장 흐름에 따라 투심이 옮겨 간 모습이다. 빅테크 기업들은 상반기에 뉴욕 증시를 주도해왔다.

다만 서학개미들이 지난주 2번째로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애플(3529만달러)이지만 거래량 자체는 꾸준한 사랑을 받았던 테슬라가 월등히 높다. 테슬라의 순매수 금액은 1975만달러(261억)로 3위에 그쳤지만, 매도 금액은 2억6205만달러(약 3471억)로 엔디비아(2억9738만달러)와 3533만달러(468억) 정도의 낮은 차이를 보였다. 그만큼 지난주 테슬라의 거래가 활발히 이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6위에 이름을 올린 ‘TD YL TSL IN ETF’도 테슬라의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커버드콜 방식의 고배당 상품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 안전관리 강화

국토부, 하반기 교통안전 점검

국토교통부는 5개 지방국도관리청, 행정안전부, 경찰청, 17개 시·도 교통안전 담당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보행자 및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 안전대책을 하반기에도 지속해 나간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대책으로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회전 일시 정지 홍보, 우회전 신호등 설치, 보행자 우선도로 추가 조성, 마을주민 보호구간 확대를 추진한다. 개학 시즌을 맞아 관계기관과 함께 학교 주변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방호울타리도 새롭게 설치하거나 교체한다.

또 이륜차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인

도·횡단보도 주행 행위에 대한 경찰의 상시적 단속을 비롯해 공익제보단의 제보를 통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버스에 대한 점검·단속도 강화한다. 200여개 버스업체에 대한 안전 점검, 전세버스 불시 점검,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 및 선별적 단속 등으로 버스 교통사고 예방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안전의식이 느슨해지는 가을 나들이철에는 대형버스 등의 법규 위반을 단속하고 연말에는 음주운전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한국도로공사의 ‘인공지능(AI) 자동적발 시스템’도 하반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드론을 활용해 고속도로상 법규 위반 행위를 AI가 자동 선별·단속하는 시스템이다. /이규성 기자 peace@

부동산 강제·임의경매 물량 ‘역대 최고’

전세사기·강통전세 등 영향 커

전세 사기와 강통전세 등의 영향으로 올해 부동산 강제·임의경매 물량이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부동산 건수(건물·토지·집합건물 포함)는 6만9988건으로, 전달(6만8644건) 대비 2%(1344건) 증가했다. 지난 1월(6만5861건)보다 6%(4127건) 늘었다.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6만9000건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0년 5월(6만9033건) 이후 처음이다.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전국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부동산 건수는 10만7534건으로, 1개월 만에 4%(4364건) 증가했다. 지난 1월(2만3922건)과 비교하면 29%(2238건) 늘었다. 2020년 5월(10만8541건) 이후 3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건수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전세 사기와 강통전세 등으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온전



서울 시내 아파트 일대 모습. /뉴시스

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강제·임의경매 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보험 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는 344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악성 임대인 수(233명)와 비교하면 7개월 만에 111명이나 늘어났다. 이들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은 1조5769억원이다. /김대환 기자 kdh@

금호건설, 제주 가축분뇨 처리시설 준공

하루 최대 430톤 처리 가능

금호건설은 지난 4일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준공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하루 최대 200톤(t)의 가축분뇨를 처리하던 시설을 최대 430톤까지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로 499억6000만원이 투입됐다.

이번 사업으로 제주시는 제주시 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해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게 됐

다. 가축분뇨 처리 후 얻게 되는 바이오 가스를 처리시설에 재사용해 신재생에너지의 활용도까지 높일 수 있게 됐다.

금호건설은 이번 증설사업에 자체 개발한 환경친화적 기술 ‘KH-ABC바이오 가스화기술(KH-ABC기술)’을 적용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사업에 적용된 금호건설의 기술은 기존 기술보다 교반(섞임) 성능 및 소화(미생물이 가축분뇨를 분해하는 작용) 효율을 향상시켜 농노도의 가축분뇨 처리가 가능하다는 기술적 장점을 갖고 있다. /김대환 기자 kdh@